

## 학생\_수기-2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두 번 다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학년		성명	○○○
학업중단 위기관인	정서적 우울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3.4.17~4.21 1주, 5.15~6.2 3주, 9.8~9.27 3주 (자퇴) '24.5.20~5.24 1주, 6.13~7.2 3주					
<p>23년 2월 말.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가족문제 등으로 죽고 싶었고 그래서 4주간 병원 입원을 했다. 그 전까지 공부는 아버지의 의지로 해야 했고, 그 사실은 언제나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를 꾸며내는 거짓말이 내 일상이었지만, 병원 간 것을 터닝포인트 삼아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럼 이제 난 무엇을 해야하는가. 학교에서 무얼하며 지내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다. 공부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힘들었고, 3월 한 달을 늦게 참여한 교실의 친구들과 친해지지도 못했다. 위클선생님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위탁교육과정이나 가정형Wee센터 가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셨다. 하지만 다른 반에 친구가 많았기에 다른 곳을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아침 등교를 못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참여하게 되었다. 혼자 상담을 받을 때도 있고 숙려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는 아로마테라피, 사진치료 등 집단 활동에 참여했다.</p> <p>그러다 문득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가끔 눈빛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같아 신경쓰이고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을 가고 싶었겠다. 위클 선생님과 대학에 대해 알아보며 글쓰는 일을 위해 문예창작과를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도 생겼다. 하지만 죽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날 이후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다. 그래서 위클 선생님과 같이 수험 서적도 알아보고 인강도 찾아보았다. 하지만 기운을 차린지, 며칠이나 됐다고 방전이 되버렸다. 그러면서 '1학년 내신은 나쁘지 않았는데, 2학년에 손 놓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다시 2학년 처음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차 커졌다. 결국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자퇴를 결정했다.</p> <p>자퇴는 했지만 재입학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못하는 걸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았다. 죄책감이 더 강해졌다. 나는 왜 남들처럼 못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다면. 다시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또 힘들지 않을까? 검정고시를 쳐야할까? 07년생이 우리보다 공부도 더 잘하는데 무섭다고 하는데.</p>						

그래서 위클 선생님께 그 고민을 이야기했다. 선생님도 솔직히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2월에 연습을 해보자고 했다.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께 허락받아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 등교일에 학교를 가보기로 했다.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어 밤도 잤다. 간만에 온 학교는 너무 재미있었다.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 놀러도 갔다. 근데 너무 신나서일까 다음 날에 몸살에 걸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 며칠도 제대로 못 나오는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이구나.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왜 이걸 조절 못 하지 너무 분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학교를 가자라는 욕구가 올라왔다. 친구들과 엄마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봤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결국 나의 답은 '졸업식이 하고 싶다!'였다. 수학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다. 그래서 운동해서 체력도 기르고 살도 뺐다. 매일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고 싶어 위클 선생님께 다시 부탁드렸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과도 이야기하고 3일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괜찮겠냐, 지난번처럼 다시 학업중단이라는 건 없다. 아프더라고 아침에 학교는 오는 거라고 여러 차례 약속한 끝에 학교를 올 수 있었다.

돌아온 학교는 너무 즐거웠다.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은 내게 과분할 정도로 착했고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이전까지 공부는 해야 해서 억지로 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작년에 계속 공부해 온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보충을 위한 방과후 수업도 신청하고 글도 쓰고, 하고픈 게 너무 많았다. 3학년의 친구들도 괴롭힘 당하면 이야기하라며 응원해주었다. 그리고 첫 번째 중간고사도 너무나 잘 봤다. 교장선생님도 걱정했는데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다. '잘할 수 있다니깐요' 하면서 뿌듯했다.

그러나 초반에 체력을 전부 써버린 것처럼, 다시 일어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다. 작년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 무서웠다. 내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진 걸까? 재입학을 잘못된 선택이었나? 나는 왜 이거 밖에 못할까.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슬펐다. 주변을 힘들게 하는 내가 너무 미웠고 죽고 싶었다. 모든 걸 다 회피하고 다시 자퇴하고 집에 틀어박히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업중단숙려제 하는 동안 우울감 조절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하며 자해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더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위클래스 선생님과 부모님에 이끌려 겨우 병원을 갔고 또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모든 도움이 너무 성가시고 힘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약을 잘 먹기로 약속하고 퇴원했다. 그 전에는 안 넘어가던 약을 젤리와 함께 꾸준히 먹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마다 학교를 올 수 있게 되었다.

돌아온 학교는 친구와 선생님들이 반겨주었고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다고 해주셨다. 2학기가 되며 또 할 게 많아졌다.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은데 기말고사를 망친 것이 아까웠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마음을 다 잡았다. 이번에는 잘해보리라. 방과 후 수업도 3개

나 신청했다. 친구와 학교 앞 여성센터에 기타수업도 신청해서 같이 가고 있다. 두드림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함께 뮤지컬도 보러가고, 지역 인근에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다. 반에 친구들도 많고 같이 놀러 갈 수학여행이 기대된다.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잘하다가도 지치기도 한다. 그 예로, 약을 먹으면 잠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게 싫었다. 그래서 약을 늦게 먹거나 약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버지는 그럴거면 학교 그만두라고 하셨다. 날 포기한 것 같아 무서웠고, 진짜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다. 위클래스에서 내가 힘든 점을 털어놓고 나니 아버지와 대화할 용기가 생겼다. 아버지는 내 속마음을 아시고 같이 더 노력하자고 하셨다.

모두가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뭐든지 겁내고 더 잘하지 못하는 내가 밋고 답답하다. 가끔 나는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왜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오는 게 안될까?' 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면 상담 선생님은 너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지쳐서 그런 거니 천천히 돌아오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신다. 그러면 조금 진정되고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다. 내년엔 친구들과 상담선생님이 가고 나면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나는 현재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현재를 잘 버티내다보면 미래가 올 것이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될 것이다. 현재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버티리라 마음 먹었다. 그러다보면 어느샌가 나는 친구들에게 졸업 축하를 받고 있을리라.